

송전철탑 옆 도로개설 ‘위험천만’

여수시 이설 않고 사면보강 공사 강행

시민들 “태풍·호우때 대형사고 우려”

여수시가 송전철탑 아래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철탑을 이설하지 않고 사면(斜面) 보강공법으로 공사를 강행해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주상~덕양)를 개설하면서 주상동 LG화학 남문 건너편에 위치한 송전철탑 밑으로 도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시는 송전 철탑 아래로 도로 공사를 하면서 철탑 사면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격자블록+영구 앵커공법’으로 25m 높이의 계단식 수직벽을 쌓고 있다.

이 송전 철탑은 여수산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154kv로, 화치변전소로 연결돼 만약 도로 공사로 인해 추후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피해 발생이 우려돼 총리실 등 관계기관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는 당초 도로 개설을 위해 송전 철탑 1기를 옮겨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1기를 이설하려면 3기를 이설해야 하고, 용지 확보가 쉽지 않아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전까지 개통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철탑 사면보강 공사 방안을 선택했다.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는 도로 공사로 인해 추후 철탑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여수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여수시와

협의를 마쳤다.

시는 철탑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직으로 콘크리트 블록을 쌓고 15m 정도의 앵커를 심는 것 외에 철탑 주변에 마이크로 파일을 박고, 우기(雨期) 시 침수를 대비해 ‘수평배수 다발공’을 설치했다.

하지만 문제의 송전 철탑은 수직 벽과 불과 8m 정도에 위치해 약천후 발생시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철탑 주변 환경이 달라진 상황에서 철탑의 풍하중 등이 고려 안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도로 공사전에 이미 송전 철탑설계 시공단계에서 ‘풍하중’(風荷重)을 고려해 안정된 지반에 설치된 만큼 별도로 풍하중에 대한 고려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전문가는 “송전 철탑이 있는 곳에 도로 개설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굳이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면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이설을 해야 한다”며 “태풍과 비가 왔을 경우 과연 버틸 수 있을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도 “당초에 도로가 들어설 자리가 아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들의 불안 심리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시민 김모씨(53·여수시 소호동)는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이곳을 지날



여수시가 도심 한복판 송전 철탑 아래로 도로를 개설해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같이 송전철탑 아래로 도로를 개설하는 일은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송전 철탑만 보면 아찔하다”며 “여수 시민은 물론 여수를 찾는 방문객들이 이 광경을 보면 무슨 말이 나오겠냐”고 혀를 찼다.

한편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총 사업 예산 691억원을 들여 지난 2008년 12월 착공해 2.2km 구간을 내년 4월 박람회 개최전 완공될 예정이다.

／글·사진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강진군 ‘24시간 분만 산부인과’ 7일부터 운영

전문의 2명 진료

올해 정부지원 분만 산부인과 설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강진군이 7일부터 ‘24시간 분만 산부인과’를 본격 운영한다.

강진군은 시범사업 운영기관인 강진의료원에 12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산부인과 관련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전문의 2명과 간호

사 8명을 추가로 채용, 전문적인 진료와 분만에 들어간다.

강진군은 지난 2005년부터 다양한 출산·양육 정책을 추진한 결과 출산율 2008년 1위, 2009~2010년 2위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분만 산부인과 병·의원 공모 등 적극적인 유치를 펼치는 등의 노력이 인정돼 정부의 분만 산부인과 설치 지원 지역

으로 선정됐다.

장동욱 강진군보건소장은 “강진의료원이 전남 서남부지역의 거점 산부인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증가하는 결혼 이주여성들의 보건향상과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지역민에 돌려줘야” “서울대에 양도해야”

국회사 백운산·지리산 학술림 토론회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광양 백운산과 구례 지리산내 서울대 학술림의 법인 사유화 논란에 대해 이해 당사자간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백운산과 지리산 서울대 양도, 무엇이 문제인가” 제하의 토론회가 지난 2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우운근(광양) 의원, 광양과 구례 주민, 서울대 관계자,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대 법인화로 백운산내 1만973ha, 지리산내 5245ha 등 총 1만6218ha의 서울대 학술림이 법인 사유 재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광양과 구례 주민들이 주민 생

활과 산림산업 등에 막대한 지장을 우려하며 백운산과 지리산 되찾기 운동을 벌이는 등 큰 파장이 인데 따른 것이다.

우 의원과 박두규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 대표 등은 “산림의 기능이 국민휴양과 여가뿐만 아니라 산림복지로 발전하고 있는 마당에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포기하고 서울대의 사익을 보호하고 있다”며 “서울대 학술림은 지역주민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대 조계종 교수도 “백운산은 생태경관보전지구, 지리산은 국립공원지역인 만큼 무상양도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학술림의 경우 교과부나

학교법인인 아닌 환경부나 산림청이 관리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서울대 학술림장인 정주상 교수는 “학술림의 학술적 수월성과 연구성 보장을 위해 양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과부 장보현 과장도 “이들 학술림이 서울대 법인에 양도되더라도, 증여, 교환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서울대 입장을 지지했다.

기재부 김금남 과장은 “국유재산 관리, 산림의 보호와 육성, 서울대 연구 측면, 주민들의 여망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박영진기자 ik5826@

나주배 지리적 표시 등록 실사 마쳐

나주시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 나주 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추진중이다.

나주시와 배농협 등은 최근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한글(나주배)과 영문(Naju Pear)으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신청, 현지 실사 등을 마쳤으며 연말께 확정될 예정이다. 표시제 신청에는 나주배 농가 1800여명이 참여했다.

전남지역 지리적 표시 등록 품목은 전국 제1호인 보성 녹차(2002년 1월)를 비롯해 고흥 유자, 진도 홍주, 담양 딸기 등 농산품과 가공품(17개), 장흥 표고버섯, 영암 감 등 입산물(6개)

등 23개에 이르고 있다.

이번 나주배를 비롯해 고흥 석류, 한우, 보성 회천감자, 검정쌀, 울금 등 9개 품목 등록이 추진되고 있다.

지리적 표시제는 지리적 특성이 있는 우수한 농수산품과 가공품 등의 품질 향상과 지리적 명성을 키워 생산자 소득을 증대하는 제도로 지적재산권이 보호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되면 ‘나주배’ 명칭을 정식으로 사용, 해외 수출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jung@

화순경찰서 탈북동포 정착 돕기

화순경찰서(서장 윤명성)가 관내 북한 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순경찰 정보보안과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2일 관내 북한 이탈주민 7세대에 직원들이 모은 사람나

눔 성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사진> 이에 앞서 화순경찰은 북한 이탈주민 손모(42·여)씨의 관내 중소기업 취업을 알선했다. 손모씨는 담양 경찰관과 상담과정을 통해 중소기업 취



업이라는 해결책을 찾게 됐다. 윤명성 서장은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라 관내 455세대의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어르신들의 따뜻한 전기밥솥

곡성 노인일자리사업

옥수수 재배 수익금

경로당 29곳에 전달

곡성군 노인들이 땀 흘려 손수 가꾼 흑찰옥수수 판매 수익금을 지역에 환원해 눈길을 끌었다.

곡성군 삼기면(면장 한승일)은 올해 단순 공익형 일손 돕기에 머물렀던 노인 일자리사업을 생산적인 활동으로 바뀌며 특산물인 흑찰옥수수 재배에 나섰다.

관내 유흥농지에 심은 흑찰옥수



수는 맛이 빼어나 입소문을 타 주민량을 맞추지 못할 정도로 인기에 판매됐다. 면사무소는 판매 수익금 490여만원의 활용 방안을 주민들과 상의한 결과 전기밥솥을 구입해 지난 31일 29개 경로당에 전달했다.<사진>

삼기면 정상만(81) 노인회장은 “풀베기나 청소 등으로 용돈벌이에 그쳤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옥수수 재배라는 생산적인 방법으로 바뀌어 경로당 밥솥까지 마련하게 되어 보람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국기자 kjkim@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 시내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사들임과 알선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

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절영, 대인동 소문자간판)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매매

- ▶산월IC 교통광장 접 코너
- ▶면적:700평,1350평 분할가 광고효과 최고!!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전남곡성 재활용 공장(PP,PE수출) 급매

- ▶대지: 2,000평 / 건물 500평
- ▶영업권 및 자산 일체 (현재 흑자 영업중)
- ▶매매가격: 협의후결정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 ▶대지: 1,500평(6차선 도로접)
- 자연녹지: 700평 일반공업지역 :800평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급매

- ▶대지: 538평, 680평, 1000평
- ▶건물: 300평, 200평, 200평
- ▶높이: 8, 9, 10.9m
- ▶호이스트: 유, 유, 유
- ▶매매가격: 협의후결정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토지매매

위치: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대지: 4,000평

•전: 9,500평

•합계: 13,50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광주에서 8분거리

공동중개환영

길잡이공인중개사

•상표등록: 41-0163369호•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념 공원사거리)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	---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수기동 [12층광장호] 대1846㎡, 건27642㎡ 감정가 90억 최저가 50억	신안동 [4층근린시설] 대985㎡, 건1191㎡ 감정가 8억9천 최저가 3억9천	광양마동 [노인병원] 대24800㎡, 건10181㎡ 감정가 100억 최저가 45억	일곡동 [원룸] 대199㎡, 건345㎡ 감정가 3억1천 최저가 2억2천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곡성곡성 공장 ▷대지 (지식경제부 임대) ▷건물879평 ▷감정가 15억7천 ▷매매가 8억4천 (협의후결정)	해남 병곡본도 ▷대지 2284평 ▷건물 2654평 ▷감정가 83억 ▷매매가 32억 (협의후결정)	전주 의왕류센터 ▷대지 4112평 ▷건물 1749평 ▷감정가 85억5천 ▷매매가 65억 (협의후결정)	전주 헬스타운 ▷대지 427평 ▷건물 716평 ▷감정가 22억6천 ▷매매가 9억4천 (협의후결정)

곡성곡성 공장		해남 병곡본도		전주 의왕류센터		전주 헬스타운	
▷대지 8754평 ▷건물 2891평 ▷감정가 44억3천 ▷매매가 20억 (협의후결정)	▷대지 7125평 ▷건물 5465평 ▷감정가 135억 ▷매매가 85억 (협의후결정)	▷대지 2284평 ▷건물 2654평 ▷감정가 83억 ▷매매가 32억 (협의후결정)	▷대지 2284평 ▷건물 2654평 ▷감정가 83억 ▷매매가 32억 (협의후결정)	▷대지 4112평 ▷건물 1749평 ▷감정가 85억5천 ▷매매가 65억 (협의후결정)	▷대지 4112평 ▷건물 1749평 ▷감정가 85억5천 ▷매매가 65억 (협의후결정)	▷대지 427평 ▷건물 716평 ▷감정가 22억6천 ▷매매가 9억4천 (협의후결정)	▷대지 427평 ▷건물 716평 ▷감정가 22억6천 ▷매매가 9억4천 (협의후결정)

곡성곡성 공장		해남 병곡본도		전주 의왕류센터		전주 헬스타운	
▷대지 8754평 ▷건물 2891평 ▷감정가 44억3천 ▷매매가 20억 (협의후결정)	▷대지 7125평 ▷건물 5465평 ▷감정가 135억 ▷매매가 85억 (협의후결정)	▷대지 2284평 ▷건물 2654평 ▷감정가 83억 ▷매매가 32억 (협의후결정)	▷대지 2284평 ▷건물 2654평 ▷감정가 83억 ▷매매가 32억 (협의후결정)	▷대지 4112평 ▷건물 1749평 ▷감정가 85억5천 ▷매매가 65억 (협의후결정)	▷대지 4112평 ▷건물 1749평 ▷감정가 85억5천 ▷매매가 65억 (협의후결정)	▷대지 427평 ▷건물 716평 ▷감정가 22억6천 ▷매매가 9억4천 (협의후결정)	▷대지 427평 ▷건물 716평 ▷감정가 22억6천 ▷매매가 9억4천 (협의후결정)

곡성곡성 공장		해남 병곡본도		전주 의왕류센터		전주 헬스타운	
▷대지 8754평 ▷건물 2891평 ▷감정가 44억3천 ▷매매가 20억 (협의후결정)	▷대지 7125평 ▷건물 5465평 ▷감정가 135억 ▷매매가 85억 (협의후결정)	▷대지 2284평 ▷건물 2654평 ▷감정가 83억 ▷매매가 32억 (협의후결정)	▷대지 2284평 ▷건물 2654평 ▷감정가 83억 ▷매매가 32억 (협의후결정)	▷대지 4112평 ▷건물 1749평 ▷감정가 85억5천 ▷매매가 65억 (협의후결정)	▷대지 4112평 ▷건물 1749평 ▷감정가 85억5천 ▷매매가 65억 (협의후결정)	▷대지 427평 ▷건물 716평 ▷감정가 22억6천 ▷매매가 9억4천 (협의후결정)	▷대지 427평 ▷건물 716평 ▷감정가 22억6천 ▷매매가 9억4천 (협의후결정)